

2020년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정기총회 및 국제학술대회



☞ 최지연
 ☞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팀장
 ✉ jchoi@klri.re.kr



ALIN 국제학술대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ALIN 국제학술대회는 COVID-19에 따라 온,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었다.

아시아 지역 18개국 33개 회원기관으로 구성된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사무국을 맡아 각국 법제정보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학술 네트워크이다. 2004년 제1차 회의 이후 매년 회원 정기총회와 국제학술대회를 각 회원기관에서 주최하고 있다. 올해는 사무국인 한국법제연구원의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전년도 태국에서 열린 회의에서 결정하여 회원기관 참여자들과 함께 한국에서 행사를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연 초 발발한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회원기관 대표들을 모두 한국에 모시고 회의를 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회원국이 모이는 정기총회와 국제학술대회를 취소하는 것은 곤란하기에, 올해 다른 기관에서 개최한 여러 회의처럼 ALIN총회와 국제학술대회도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수정,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다.

국내·국제적으로 비교적 소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화상회의는 올 해 상반기 동안 여러 차례 진행하



고, 참여한 경험이 있지만, 이렇게 아시아에서도 전력수급과 인터넷 연결 안정성이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수십 개국 참여자를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개최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서부터 각별히 신경을 쓰게 되었다. 더군다나 올해 총회는 ALIN 정관 개정이라는 큰 주제를 놓고 수개월에 걸쳐 회원들 간에 이메일로 이루어진 논의를 마무리하고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회의장에서 회원들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었다. 이에 각국 통신 장비 준비와 함께 여러 차례 시범운영을 거쳐 행사에 임했다.

총회 당일,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이 사무국 대표이자 올해 총회 개최기관장으로 회의의 의장을 맡아 진행하는 가운데 총33개 회원기관 중 26개 회원기관의 화상 토론과 의결로 정관 개정과 운영규정 채택이 완료되었고, 방글라데시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법과대학의 신규회원이

입까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진행하는 한국법 아카데미에 대한 설명과, 내년도 ALIN 회원국이 참여하여 진행 구상중인 공동연구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 내년도와 내후년도 개최지 선정 및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 시 개최 방법 변경 등 대처 방안까지 논의를 한 후, 총회는 막을 내렸다.

오후 시간에는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의 개회사 후 권오승 전 공정거래위원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연설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아시프 쿠레시 교수의 기조연설로 국제학술대회를 시작하였고, 두개의 세션을 연이어 진행하였다.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의 법제 (Laws for Fading Borders in Asia)”를 대주제로, 팬데믹 영향 아래 국경의 의미가 무색해져 가는 시대, 아시아 각국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법제의 현주소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ALIN 회원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으

로 구성된 국제학술대회의 첫 번째 세션은 “국경을 넘어서다”는 의미에서 이주와 무역에 대한 주제로 인도법학원의 시바쿠마 교수와 마카오법대의 스페틀리치니 교수가 인도와 마카오의 해당 법제 논의를 소개해 주었고, 이에 대하여 베트남 국가와 법 연구소의 팜티투이응아 교수가 베트남 사례를 들어주었고, 한국 한동대의 조혜신교수가 한국경쟁법과 실제적용을 들어 토론을 진행했다. 두 번째 세션은 “희미해지는 국경”의 측면에서 국경을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무색한 인권의 측면을 다루었는데, 베트남 국가와 법 연구소의 응웬린지앙 교수가 코로나시대 인권 보호에 대한 우려 점을 베트남의 사례를 들어 소개해 주었고,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 파라디스 모슬렘자데 교수가 코로나 환자 추적에 사용되는 정보 보호와 침해한 인권의 문제를 제기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카자흐스탄 입법과 법정보 연구원의 살리코바 디나라 교수가 코로나로 사법 적용과 집행이 디지털화된 카자흐스탄의 실례를 설명해주었다. 각각의 발표에 성신여대 김연식 교수, 그리고 한국법제연구원의 조용혁 연구위원과 최지연 연구위원이 토론을 진행하며 한국의 사례와 분석을 설명하였다.

올해 국제학술대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어 현장과 각국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총 200여명이 실시간 접속, 참여할 수 있었다. 그동안 각 회원국의 회원기관에서 진행되며 여러 기관대표들이 만나고 교류할 수 있었지만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연구 성과나 내용을 확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반면, 올해 코로나19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생중계를 통해 세계 각국 수백 명에게가 닿을 수 있었던 것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던 발표논문 출판, 각국 법제가이드 발간 등 ALIN 네트워크의 정보를 모아 확산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함께, 시대에 변화에 따라 새롭게 고안되는 여러 방안으로 ALIN에서 생산되고 공유되는 법제 정보와 지식을 한국법제연구원이 추축이 되어 한국 뿐 아니라 세계로 확산하도록 차년도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